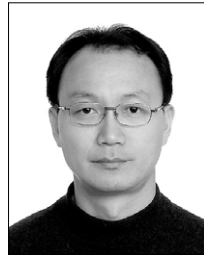


요즘 인생의 어려움, 마음의 짐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대중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자주 접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삶을 포기할까하는 생각을 하며, 연민의 마음이 일어나는 한 편, 나는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아란 무엇인가? 왜 살아야 하는가? 깊어가는 가을, 사춘기 때 일어났던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도심의 인도 위를 구르는 낙엽을 밟으면서, 산기슭을 오르며 맑게 떠오른 10월의 보름달 빛을 받으면서,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삶의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는지 마음 속 깊이 물을을 던져봅니다.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여덟 가지 인생의 부질 [八風, 八世間法]에 의해 항상 흔들립니다. 칭찬과 비난, 명예와 불명예, 이익과 손실, 즐거움과 괴로움이라는 바람이 부는 세상살이, 이리 저리 흔들리며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4가지 순풍이 불면 들떠 흔들리고, 4가지 역풍이 불면 침체되어 흔들립니다. 바람 앞의 등잔처럼 위기의 순간들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처럼 불어오는 세간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살이에서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반열반(완전한 열반)을 이루신 부처님은 붓다 입멸 후에 법과 율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과 법을 의지처로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디가니까야, 대반열반경, DN 110 이하) 그리고 아라한이 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



**불자 세상보기**

**김재성**  
조계종 전통사상서간행회 선임연구원

**진정한 의지처는 어디에 있는가?**

이 당부하신 후 입멸하십니다.

“그럼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지금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소멸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諸行無常). 게으르지(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 vāyadhammā samkhāra, appamādena sampādettha.”

우리는 45년을 인연이 닿는 중생들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해탈에 이르게 도와주셨던 붓다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에서 진정한 의지처가 무엇인지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지처는 바로 세간의 바람을 위시한 무상한 것

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열심히 계정해 삼학(八正道)을 닦는 정진을 하여, 법에 의해 잘 닦인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순풍의 단맛에 빠져버리기 쉽고, 역풍의 쓴맛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인생에서 순풍의 맛을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그 바람도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평정한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가요. 역풍이 괴로워도 그 바람도 스쳐 지나가고 만다는 것을 알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어떻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흐르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의지처라고 하신 법입니다. 이 법에 굳건하게 머물게 되면,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순풍과 역풍에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마음에 이와 같은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되면, 세상의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행복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섬세해진 마음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도 놓치지 않으면서 알아차리게 되며, 마음은 더욱 평온해지게 됩니다. 지극히 평온해지고 깨어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지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처님과 깨달음을 얻은 제자들은 옷 3벌과 발우하나와 최소한의 소지품만을 지니셨지만, 정말로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마음은 동요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분들이 얻은 진정한 의지처는 세상의 바람에 의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은 도구일 뿐, 도구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도구에 휘둘리게 됩니다. 도구는 필요하지만 그 한계를 잘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길들여진 마음을 떠나 따로 삶의 안식처는 없음을 깊이 이해하여, 각자의 근기에 맞는 방법으로 진정한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위해 정진한다면, 바람 속에서도 평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불교계 학회 통합운영관리 필요**  
학술진흥재단 KCI통합시스템 대응 시급

불교계 학회들이 기로에 섰다. 그간 불교학 연구를 전문으로 담당해 온 학회들이 운영과 성과의 측면에서 발전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심심찮게 들어왔다. 영세한 운영 기반과 비효율적인 회원관리 시스템, 기획력의 부족으로 인한 학술회의의 미약한 성과, 회원들의 참여의식 부족 등이 불교계 학회가 질타 받아오는 요인들이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로도 진취적 활동에 발목을 잡히는 학회라면 상당부분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의 필요성마저 수년째 ‘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식은 있지만 틀을 바꿀 원동력은 확보하지 못한 채 세월만 보내 온 것이다.

이제 상황이 급해졌다. 우리나라의 학술 제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를 집대성하고 학술 단체들의 역량을 평가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및 학술지 평가를 위한 웹스(AMS)를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 사업이 실시되면 학자 개인의 학문적 성과는 물론 학회의 활동 성과와 역량 등이 분명하게 경쟁력을 갖게 되고 차별화 될 것이 뻔하다. 더 이상 타성에 젖은 학문 활동이나 학회의 운영은 명함을 내놓을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앞에 선 불교계 학술단체들은 뭔가 중요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 이미 불교계 학자들 사이에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다. 동국대학교 등 종합대학에 근간을 둔 학회와 그렇지 못한 학회간 운영조건 차이와 행보의 간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만, 운영에 있어 외부의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점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받아 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술계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따라잡으며 불교학의 깊이와 넓이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통합적인 운영과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 개별적인 운영으로는 개혁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간의 행보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통합 의견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통합하고 운영의 전문성을 살려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과연 불교계에 그럴만한 동력이 있느냐를 물어야 할 것이다. 또 각 학회들이 얼마나 허심탄회하게 동참하는가도 근원적인 관건이다.

그렇다면, 학회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의 이야기 아니기에 당사자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담론의 장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다음에 학자와 학회가 공히 인정할 수 있는 법인 내지는 실무기구를 구축해야 한다. 그렇게 통합 운영 관리의 틀을 갖춘 기구가 각 학회의 설립 취지에 맞는 활동을 지원할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국불교는 기존의 불교역사에서 독특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왔다. 때문에 한국불교 자체만으로도 연구 과제가 수미산만큼 쌓여 있다. 불교계 학회들이 시대흐름을 누구보다 빨리 읽고 체질변화를 위해 과감하게 인습을 버리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난 태어나지 말걸**

교도소에 가 보면 정말 그의 죄를 미워하기 전에 그가 걸어온 삶의 고통에 대해서 가슴 저리게 아파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30세가 넘는 박씨도 그런 사람이다. 그의 편지에 의하면 그는 베트남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박씨가 다섯 살 무렵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친어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것은 슬픔이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나라에 왔으니 반갑고 기쁜 일이었 것이다.

당당한 한국의 어린이로서 무럭무럭(?) 자라야 할 나이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할머니와 고모들이 그를 손자로 조카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 나보다 다른 가족이 더 중요했던 걸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자세한 설명이 없어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것이 얼마나 그의 가슴에 비수 같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린아이의 아픔을 상상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를 보육원에 데려갔다. 그곳에 놓고 간 후 소식이 없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친할머니와 가족들이 그의 존재를 거부한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전인 그 때부터 박씨는 자신의 고국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한다. 어린아이의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잘못 낳아

**“부처님 가피 항상 그대 곁에”**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90 부모님을 용서하고 싶어요**

주신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고요. 나중에 커서 학교 다니면서부터는 부모님이 있고 함께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무조건 부럽고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사고도 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소위 문제아로 자라왔고 전과도 몇 번에 이르게 됐다.

**항상 함께 하시는 부처님**

다행히 그는 얼마 전 불법의 인연을 만나 불자가 되면서 마음에 많은 안정을 찾게 됐다고 한다. 그의 사연을 알고 보니 빼어난 눈물 속에 한국인으로서 어떤 책임감 같은 것마저 느껴졌다. 서양에서는 아무 관련 없는 한국 아이들을 입양해 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친 핏줄도 거부해야 하

다. 함께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모르셨어요? 베트남 이런데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많답니다” 하는 말씀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부처님께 기도하며 편지를 썼다. “법우님, 법우님 마음속에 계신 부처님께서는 반드시 법우님을 위해 물어주셨을 것이고 한시도 법우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많은 것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 참된 불자들도 많이 있답니다. 법우님이 살아오시면서 좋은 인연을 못 만났던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더 아픈 사연도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며 사는 가족들도 있고, 학생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감싸는 선생님들도, 소외된 친구들을 차별하지 않는 마음 따뜻한 친구들과들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깝군요. 모

두가 법우님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법우님 같은 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 잘 살아 온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략) 제발 힘내세요. 부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항상 법우님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원망 대신 자비심을 주세요**

다음에 면회를 가니 박씨는 “편지 받고 많이 울었다. 불교공부 열심히 하고 싶다”고 한다. 그 후 몇 년 동안 박씨는 편지할 때마다 <천수경> 등을 사경해서 보낸다. 얼마 전에는 <부모은중경>을 보내달라고 했다. 원일일까,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든 것일까, 깊이 관다 보니 감사한 마음이 올라왔다. 그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원망과 증오가 아니라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신의 인연과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다. 자신을 버렸던 부모님을 이제는 오히려 자비로운 사랑으로 감싸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부처님, 그 분들을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어 악업을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청하옵니다. 그 분들 마음속에 따뜻하고 밝은 부처님 사랑의 빛이 피어날 수 있도록 부디 이끌어주시옵소서. 너무 관세음보살.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이 역학입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쫓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 (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스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건설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공부하십시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사주통달책이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